

▣ 본문 감상

1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이 다 녹거다
 매화난 밭서 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아해야 울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하여라.

⇒ 봄(잔설이 녹는 봄날 분위기, 농사짓기 준비- 울타리 고치기와 채소밭 갈 준비)

3

잔화 다 딴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 고촌에 낮닭의 소리로다.
 아해야 계면조 불러라 긴 줄음 깨오자.

⇒ 여름(녹음 깊어 가는 한가로운 여름철 분위기)

5

흰 이슬 서리 되니 가을히 늦어 잇다.
 긴 들 황운(黃雲)이 한 빗치 피거고야.
 아해야 비잔 술 걸러라 추흥 계워 하노라.

⇒ 가을(이슬 내리는 가을철 곡식 익는 들녘과 추흥)

7

북풍이 노피 부니 압 뒤흔 눈이 딛다.
 모(茅)담 찬 비치 석양이 거의로다.
 아해야 두죽(豆粥) 니것나냐 먹고 자랴 하로라.

⇒ 겨울(눈 내리는 겨울철 분위기, 콩죽 먹고 자는 여유)

9이봐 아해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헌서한 세월이 소년 앓아 가나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 되얏노라.
 ⇒ 저녁(한 해를 가며 나이를 먹는 서글픔)

▣ 핵심 정리

■ 주제 : 전원생활의 유유자적한 삶

■ 형식상 특징 : 춘하추동을 각 두 수씩 노래하고 이어 '제석'을 노래

※ '제석'이란 선달 그믐밤이란 특정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춘하추동과 동일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그들과 대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해와 감상

신계영(辛啓榮)이 지은 연시조. 총 10수. 작품의 짜임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 각 2수씩의 율고 이어 제석(除夕)이라 하여 선달 그믐날 감회를 2수 덧붙여 마무리하였다. 작품의 형식은 평시조의 율격을 잘 준수하였으며, 다만 하(夏)의 둘째 수에 종장이 결락(缺落)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눈이 녹고 매화가 지는 봄을 맞아 울타리를 고치고 소 먹여 논밭갈이 할 것을 독려하는 모습을,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여름을 맞아 거문고 소리와 계면조 노래에 긴 졸음을 깨는 한가한 삶을, 국화 피고 곡식이 무르익은 가을을 맞아 술과 안주로 취흥을 즐기는 모습을, 북풍이 몰아치는 눈 쌓인 겨울을 맞아 한가하게 음식을 즐기고 잠이나 청하는 모습을, 끝으로 선달 그믐날을 맞아 또 한해를 보내며, 자꾸만 흘러가는 세월에 어느새 백발이 되어 한평생이 저무는 안타까운 심정을 각각 노래하였다.

이와 같이, 전원생활에 파묻혀 유족한 삶과 한적한 흥취를 즐기는 조화로움을 주제로 담아 노래하고, 다만 그러한 조화의 기쁨을 영원토록 지속하는 데 장애가 되는 백발의 안타까움을 덧붙임으로써 현실에서의 자족적 삶을 더욱 강조하였다. 자작의 문집 《선석유고 仙石遺稿》에 수록되어 있다.